

##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sup>1)</sup>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취업시도와 그 결과가 그들의 실직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취업시도의 횟수와 취업시도의 성공 및 실패에 근거하여 네 집단(취업 성공집단 / 구직 부분실패 집단 / 구직 완전실패집단 / 구직미시도 집단)으로 나눈 20대 미취업 실직자들(476명)을 대상으로 생활사건 변화, 진로태도, 통제감,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통제감, 미래에 대한 무망감 수준을 검사하였다. 그 결과,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의 경우 생활사건의 변화가 가장 컸고,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나빴으며, 통제감도 낮은 수준이었고, 삶의 만족도도 가장 낮았다. 반면, 취업에 성공한 집단은 여러 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고, 특히 이들은 취업준비 활동에 가장 적극적 이었으며 진로태도와 준비상태가 가장 좋았다. 또한 특이하게도, 구직 미시도 집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으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장 낮았고, 정신건강 수준과 통제감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실직이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인생설계에 큰 심리적 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업이란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과정에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업은 개인이 처한 사회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한 현상이라 각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장애가 많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업에

대한 연구도 실직의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오경자, 1998; 이훈구, 1998; Winfield, Tiggemann, Winfield & Goldney, 1993). 기존의 연구들이 실업의 원인과 효과에 대해서 일관된 결과를

1)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실업자의 교육 및 훈련과정, 그리고 재취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성인실업 연구와 대책들에 대한 관심과 대조적으로 청년실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는 물론이고 서구의 연구 편수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Winfield, et al,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그동안 실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복지 정책도 확고하지 못하다. 특히, 97년 말 우리 경제는 급격한 불황을 맞이하였고 IMF의 감독 하에 경제운영을 통제받게 되었다. 당시 급격히 증가한 실업율이 지금까지 그 여파를 남기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실업율의 증가는 급격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발생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개인적 준비도 역시 극히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전반의 경제활동 둔화는 근로자들의 실직과 신규 노동인력의 취업기회 상실로 이어졌다. 발전적 재취업의 기회와 직업이동성이 감소했고 실업급여 상태도 취약하여 결국 실업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노동인력으로 배출되는 20대 청년들의 취업도전 실패 상황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성인실업은 그들이 가장이고 이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계 등 여러 가지 부차적 문제 때문에 실업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20대 신규 노동력인 청년들에 대한 실업은 개인문제로 여겨져 왔다.

97년 말 이후의 졸업자들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기대하고 있던 혹은 이미 채용되었던 직장에서 채용연기 내지는 대기발령을 받는 등의 혹독한 취업 경쟁 상황을 맞이 하였다. 대학생 경우만 하더라도 98년 초에 이전 년도(97년말)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까지 합쳐 26만 명의 미취업자가 발생했다(이훈구, 1998). 경제불황으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취업 노력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작부터 승산 없는 취업전쟁을 치러야 했다. 특히, 상급학

교 진학이 취업의 주요한 수단이 되던 한국적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청년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새로운 자격증을 더 따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교육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현실적 환경의 요구와 불일치하는 모순 속에서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 전체 신규채용 기회가 차단되는 환경적 변화에서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주요 발달과업인 취업문제로 그 출발에서부터 좌절을 맞보게 되었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구조적 환경 요인에 의한 미취업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기치 못한 경제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취업기회의 상실에 따른 미취업 청년실직의 한 측면을 보여 줄 뿐 아니라, 넓게 그 의미를 확대한다면 직업군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신규 인력이 심각하게 적체된 상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불안정 고용상태의 젊은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이들을 위한 정책적 제안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향후 사회적 상황이 호전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20대들에 대한 이해와 대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정책 입안자들이 청년실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서 한국의 청년실업의 특성 일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청년실업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청년들의 실직 결과는 성인들이 실직 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처럼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경자, 1998; Winefield et al, 1993). 실직을 단기적 실업과 만성적 실업으로 구분해 볼 때, 단기적 실업으로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은 중년의 실직자에 비해 그 영향이 덜할 수 있으나(Broomhall & Winefield, 1990;

Rowley & Feather, 1987), 청년 실직자들은 취업에 성공한 또래와 비교할 때 심리적 안녕 (psychological well-being) 수준 뿐만 아니라(Bank & Jackson, 1982; Stokes, 1983) 여타의 심리적 측면에서도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청년기의 실적이 젊은이들의 건강한 심리 사회적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은 취업한 청년들이 실직한 청년들보다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서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Gurney, 1980; Taylor & Gurney, 1984). 특히,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은 청년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한데(Winefield, Tiggemann & Winefield, 1991; Winefield & Winefield, 1992; Winefield, Winefield, Tiggemann & Goldney, 1991), 이는 만족스런 취업이 청년들의 직업 정체감 형성과 심리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기의 실적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다(Banks & Ullah, 1988; Jackson, Stafford, Banks & Warr, 1983; Stokes, 1983).

젊은이들의 실직상태는 이들이 정체감 및 직업 태도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대 이하의 직업을 얻는다 하더라도 성취욕구와 사회적 지위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불만과 자존감 저하는 이들의 삶의 질 자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실직한 청년들의 경우에 반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실직한 청년들은 비행이나 범죄,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Donovan, Oddy, Pardoe & Ades, 1986)를 보이거나 다른 여러 형태의 저항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고립, 마비, 무기력 등을 나타내기도 했다(Colman & Hendry, 1999). 특히, 경제적 공황 초기에는 조기 사망율과 공격행동이 증가하고 장기적 불황에는 심혈관 질환과 재산범죄율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었다(Brenner, 1973).

결론적으로 청년실직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에 비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겪는다. 이러한 경험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심각

한 장애라기보다는 실직상황으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iem & Liem, 1988; Warr, 1987).

구직 성공/실패 경험이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미취업 실직상태의 젊은이들은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기능(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정체감 등) 상실에 따른 부적응 뿐 만 아니라(Warr, 1987), 경제적 획득의 실패와 취업실패에 따른 좌절도 이들에게 매우 혹독한 경험으로 남는다(Patterson, 1997). 청년 실업자들은 재정적 부담은 적으나 취업 과정에서 겪는 최초의 취업좌절로부터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기의 장기적 실업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오경자, 1998, Winefield & Tiggemann, 1989).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과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특히 졸업 후 장기적 실직은 심리적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미취업 상태는 자신들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미취업 실직은 배우자와의 결혼 및 가정생활의 준비와 같은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제공한다(Fryer, 1986; Jahoda, 1981, 1982; Warr, 1987). 또한, 이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인 경제적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발달주기 상 요구되는 부모-자녀간의 역할기대와 수행에서의 변화를 이룰 수 없게 한다.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지속되는 의존적 부모-자녀 관계는 가족 성원 전체에게 심리적 및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사회가 그 연령대의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장면에서 대인기피 혹은 무능력자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다 (Bolton & Oatley, 1987; Feather & Barber, 1983; Hawton & Rose, 1986; Platt & Kreitman, 1990; Warr, Jackson & Banks, 1988; Warr & Payne, 1982).

청년실직자는 성인실직자와는 다른 독특한 심리적 및 신체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미취업 상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이들이 효율적으로 장래를 계획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kes, 1984; Ullah & Brotherton, 1989). 또한, 이들은 취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태도를 발달시킬 수도 있다(Hendry & Raymond, 1986).

그러나, 실직의 경험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실직상황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Hartley, 1980; Latack & Dizier, 1986; Swinburne, 1981). 실직의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이들은 새로운 활동 거리를 찾거나 (Fryer & Payne, 1984), 기대 수준을 낮추어 현실적 적응을 한다 (Warr & Jackson, 1984, 1985). 이처럼 실직 후 적응 모습에서 개인차를 보이는 것은 실직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극복하도록 이끄는 개인적인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Rotter(1966)의 사회학습이론과 Weiner(1980)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특정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는 과거의 실패나 성공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며 그 속성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다. 가령, 어떤 과제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외부귀인을 하거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이후에 과업수행을 위한 노력을 덜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만성적 실직을 경험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 젊은이에 비해 취업기대나 의지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 후에도 직장에서의 고충을 견디는 인내심이 적다(Banks & Ullah, 1988; Jackson, Stafford, Banks & Warr, 1983; Storkes, 1983).

실직자들은 자신들의 취업에 대한 동기 수준과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취업 기회에서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실직상황을 평가하고 이후 심리적 적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는 실증적 연구결과(Patterson, 1997; Wanberg & Marchese, 1994)도 있다. 졸업 후 사회 진출 초부터 취업기회를 상실한 청년들에 대한 실직 연구에서 젊은이들이 가지는 취업에 대한 기대와 구직경험 유무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이다. 그래서 취업 시도와 기대, 결과에 따라 다양한 실직 상태를 구분하고 실직 경험과 결과적인 심리적

부적응 현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개인적인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실직과 달리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취업기회를 상실한 20대 청년 실업에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한 미취업 실직상태(취업을 해보지 못한 채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의 20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후 실직상황에 따른 적응 관련 자료를 얻고자 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에 취업시도의 횟수와 취업시도의 성공 및 실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직업에 대한 태도와 정체감,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미취업 실직(졸업후 취업해 보지 못한 채 실직 상태를 맞은 경우)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20대 청년기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서부터 취업 실패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미취업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각 상태에 해당하는 20대(평균 27.11세) 남녀(각각 283명과 188명) 476명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62명(34%),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졸업자가 202명(42.4%), 2년제 대학 졸업자가 92명(19.3%), 대학원 졸업자가 20명(4.2%)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81.8%(379명)가 부모형제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기혼자가 8.2%(38명)였다. 가계 소득원이 본인인 경우는 21명(4.4%) 뿐이었고 대부분 부모나 손위형제들이 소득원이었다. 가구 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표집의 40.2%이었고 100만원이하는 15.9%였다.

### 설문내용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직자들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측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실직상태조사

미취업 실직 상태(졸업시기, 실직기간, 취업 시도 및 실패와 성공횟수, 단기 취업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배경변인으로 연령, 성, 결혼 상대자(혹은 배우자)유무, 학력, 사회계층, 가족관계, 가정경제 상태, 심리적 부담, 재교육 참여 정도를 조사하였다.

### 2) 생활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사건을 나열하고 조사 대상자들이 구직 시도 기간 중에 이런 사건들을 얼마나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이 미취업 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생활변화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그 내용은 신체 및 건강 관리 생활습관(10문항), 재교육 활동(4문항), 가족관계(10문항) 및 친구관계(5문항), 재정상태(6문항)의 변화 정도 등이다. '전혀 없었다(0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로 자신의 상태를 자기보고하도록 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생활의 변화가 크고 따라서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3이었다.

### 3) 정체감 척도

Adams, Bennion과 Huh(1989)는 개인면접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로 자아정체감 자기보고형 척도(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2)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직업(8문항)과 생활관(8문항)에 관련된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로 자기보고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52로 다소 낮았다.

### 4) 진로태도 척도

Super 등(1959)의 진로발달 검사(Career Pattern Study)와 Crites(1973)의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그리고 한국형 진로성숙도 검사(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를 이용하여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청년기의 젊은이들의 진로 및 직업 태도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내

용은 5개의 하위 영역, 즉, 결정성(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함, 안정감 및 일관성의 정도: 10문항), 준비성(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계획, 관심 및 참여 정도, 정보수집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수준: 10문항), 목적성(진로선택시의 추구하는 내용과 목표,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 8문항), 독립성(진로선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정도: 9문항), 확신성(선택한 진로와 미래에 대한 확신 정도: 10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결정성 영역과 확신성 영역이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고 하위 신뢰도 계수가 낮아 확신성 하위 차원을 제외한 결정성,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 차원만을 측정하였다. 자기보고형 평가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범위로 응답하도록 했다. 점수가 클수록 명확한 진로태도를 가졌다고 해석한다. 본 자료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이전 연구에서 .70에서 .90이었고 본 자료에서는 .87이었다.

### 5) 통제감 척도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느끼는 통제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aulhus (1983)의 "통제감 (Spheres of Control)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적 효능감 (personal efficacy), 대인통제감(interpersonal control), 사회정치적 통제감(sociopolitical control)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각 하위척도는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7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클수록 높은 통제감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이전 연구에서 .75부터 .81 정도로 보고되었고 (Paulhus, 1984) 본 자료에서는 .82였다.

### 6) 간이 정신건강 척도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74)의 Hopkins Symptom Checklist(HSCL)를 기초로 제작된 SCL-90-R을 김광일과 김재환 그리고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한국판 간이 정신진단 검사(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 ; Revision)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된 자기 보고식 평정척도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9개의 증상차원(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신경증)과 현재 장애의 수준 혹은 심도를 나타내는 전체 심도 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 증상의 수를 나타내는 표출증상합계(Positive Symptom Total, PST), 그리고 순수한 장애의 강도를 나타내는 일종의 반응양식인 표출증상 심도 지수(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PSDI)를 산출한다. 이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개 증상 차원의 평균이 .73에서 .83까지이며, 내적합치도는 .67에서 .76 사이이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집단인 점을 고려하여 공포 불안, 편집증, 신경증의 3개 영역을 제외한 6개 하위 영역의 총 60문항 만을 측정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2이었다.

### 7) 삶의 만족도 척도

Campbell, Converse와 Rogers(1976)의 일상적 안녕 지수(Index of Well-Being, Index of General Affect)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8개의 형용사 목록으로 된 일상적 감정상태 문항의 총점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으며 긍정적 형용사(7점)에서 부정적 형용사(1점)로 표시하여 총점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이전보고에서 .89였고 본 자료에서는 .94였다.

### 8) 미래에 대한 무망감 평가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평가하기 위해 Beck의 무망 함척도(Hopeless Scale : eck, Weissman, Lester & Trexler, 1974) 를 신민섭(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측정하고자 제작된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예-아니오’ 로 대답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2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9였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취업 준비 실패와 취업 적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1998년 12월에서 1999년3월에 걸쳐 재교육과정에 등록된 사람들과 인터넷 상에서 20대 미취업자 및 최근 졸업한 사람들(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했다. 먼저, 재취업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은 설문지를 작성하여 다음 수업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본 연구에 참가한 대가로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를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미취업 젊은이들이 접속해서 설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에 당선된 사람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였다. 두 조사 대상자 집단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개인적 배경요인을 포함해서 앞으로 살펴볼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비슷했다. 따라서, 두가지 방식으로 얻은 자료를 통합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실직 상태 구분 및 개인 배경 요인

먼저, 구직 시도 여부와 취업성패를 대한 자기보고 반응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취업 속성을 지닌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즉, 구직시도가 전혀 없었던 집단(72명), 구직 시도에서 매번 취업에 실패했던 집단(232명), 구직시도에서 매번 성공했던 집단(34명), 구직 시도에서 실패와 성공을 함께 경험했던 집단(109명)으로 피험자를 나누었다. 이 네 집단 내에 개인 배경 요인에 의한 집단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개인 배경 요인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 실직 상태에 따른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실직에 따른 생활 전반의 변화와 신체 및 건강관리, 재교육활동,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재정상태에서 생긴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생활변화가 가장 컸고  $F(3,$

표 1. 실직상태에 따른 생활사건 변화 스트레스

	전체	신체 및 건강관리	재교육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	재정상태
구직미시도	1.75(.32) <sup>a</sup>	1.87(.40)	2.43(.73) <sup>a</sup>	1.31(.67) <sup>a</sup>	1.84(.45)	1.72(.56) <sup>a</sup>
구직시도 완전실패	1.86(.35) <sup>b</sup>	1.96(.44)	1.84(.66) <sup>b</sup>	1.74(.62) <sup>b</sup>	1.87(.47)	1.94(.57) <sup>b</sup>
취업성공	1.73(.33) <sup>a</sup>	1.82(.35)	2.41(.74) <sup>a</sup>	1.40(.69) <sup>a</sup>	1.67(.64)	1.70(.58) <sup>a</sup>
구직 부분실패	1.77(.32) <sup>a</sup>	1.88(.38)	1.73(1.95) <sup>b</sup>	1.49(.62) <sup>a</sup>	1.79(.45)	1.96(.59) <sup>b</sup>
전체	1.81(.34)	1.92(.42)	1.95(.73)	1.58(.66)	1.83(.48)	1.89(.58)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456) = 3.67,  $p < .05$ , 사후 분석에서도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집단과 타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인 영역의 내용을 보면, 구직시도 완전실패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관계  $F(3, 374) = 9.49, p < .01$ 에서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하였고, 재정상태  $F(3, 449) = 4.46, p < .01$ 와 재교육활동  $F(3, 454) = 23.51, p < .001$ 에서는 성공적인 집단이나 구직시도가 없었던 집단에 비해 구직실패 경험이 있었던 집단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신체 및 건강 상태와 친구관계에서는 구직시도 완전실패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는 경향성을 보이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직 상태에 따른 정체감 지위

본 연구에서는 실직자들의 정체감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정체감 상태에 있어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에 대한 정체감 상태에서 구직 미시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확고한 정체감을 보이지 못했다  $F(3, 438) = 3.07, p < .05$ . 그러나, 생활관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실직 상태에 따른 진로태도

진로 태도에 대한 집단간 평균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태도에 있어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표 2. 실직상태에 따른 정체감

	정체감전체	직업정체감	생활정체감
구직미시도	3.36(.48)	3.22(.52) <sup>a</sup>	3.55(.54)
구직시도 완전실패	3.43(.43)	3.36(.47) <sup>b</sup>	3.54(.47)
취업성공	3.43(.39)	3.33(.42) <sup>ab</sup>	3.56(.47)
구직 부분실패	3.48(.43)	3.43(.47) <sup>b</sup>	3.58(.47)
전체	3.43(.44)	3.35(.48)	3.55(.48)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과, 전반적인 진로 태도는 취업에 성공한 집단과 아직 구직에 나서지 않은 집단의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명확한 듯 했다. 독립성 차원에서는 구직성공집단과 구직미시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독자적인 진로태도를 드러냈다  $F(3, 432) = 4.36, p < .01$ . 그러나 준비성 차원에서는 취업성공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준비성을 보인 반면 구직 미시도 집단이 제일 낮은 준비 태도를 보였다  $F(3, 437) = 3.39, p < .01$ . 마지막으로, 결정성과 목적성 차원에서는 구직시도 완전실패집단이 가장 낮았지만,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3. 실직상태에 따른 진로태도

	진로태도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구직미시도	3.54(.52)	3.37(.87)	3.31(.68)	3.62(.55) <sup>a</sup>	3.89(.71) <sup>a</sup>
구직시도 완전실패	3.41(.47)	3.13(.79)	3.13(.65)	3.74(.50) <sup>ab</sup>	3.64(.59) <sup>b</sup>
취업성공	3.57(.56)	3.29(.85)	3.31(.79)	3.90(.54) <sup>b</sup>	3.92(.60) <sup>a</sup>
구직 부분실패	3.48(.41)	3.16(.67)	3.16(.62)	3.82(.45) <sup>b</sup>	3.72(.58) <sup>ab</sup>
전체	3.46(.47)	3.19(.78)	3.18(.66)	3.75(.50)	3.72(.61)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 실직상태에 따른 통제감

	통제감	개인효능감	대인간 통제	사회적 통제감
구직미시도	4.36(.55)	4.58(.66)	4.32(.78)	4.25(.74)
구직시도 완전실패	4.29(.57)	4.50(.60)	4.38(.74)	4.12(.82)
취업성공	4.41(.58)	4.70(.64)	4.44(.89)	4.12(.82)
구직 부분실패	4.39(.67)	4.63(.58)	4.53(.68)	4.23(.78)
전체	4.34(.60)	4.56(.61)	4.42(.74)	4.17(.80)

표 5. 실직상태에 따른 정신건강

	전체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구직미시도	1.17(.83) <sup>ab</sup>	.95(.86)	1.41(.84) <sup>ab</sup>	.98(.78) <sup>ab</sup>	1.25(.98)	1.01(.91)	1.04(.90)
구직시도 완전실패	1.36(.88) <sup>b</sup>	1.14(.92)	1.64(.89) <sup>a</sup>	1.14(.76) <sup>a</sup>	1.47(.99)	1.23(.94)	1.22(1.01)
취업성공	1.02(.72) <sup>a</sup>	.85(.76)	1.32(.78) <sup>b</sup>	.87(.67) <sup>b</sup>	1.12(.89)	.92(.81)	.82(.74)
구직 부분실패	1.17(.82) <sup>a</sup>	.93(.84)	1.44(.87) <sup>ab</sup>	.94(.66) <sup>b</sup>	1.29(.91)	1.05(.87)	1.09(.95)
전체	1.26(.85)	1.03(.89)	1.53(.87)	1.05(.74)	1.36(.97)	1.13(.91)	1.13(.97)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5) 실직 상태에 따른 통제감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감에 있어서 집단간 평균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통제감 점수에 있어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감 전체점수와 개인효능감, 대인통제감, 사회적 통제감에서 일관되게 구직시도 완전실패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낮은 통제감을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6) 실적 상태에 따른 정신건강

집단별로 실적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 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수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구직시도 완전실패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정신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으며 성공집단이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455) = 2.85, p < .05$ . 신체화 증상에서는 구직 시도 완전실패 집단에 가장 불리한 경향성을 보였다  $F(3, 433) = 2.34, p < .073$ . 또한, 강박증  $F(3, 431) = 2.64, p < .05$ , 대인예민성  $F(3, 440) = 2.89, p < .05$ , 우울  $F(3, 427) = 2.17, p < .091$ , 불안  $F(3, 430) = 2.19, p < .088$  에서도 구직시도 완전실패 집단에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을 얻지 못했다. 적대감의 경우에서도 구직시도 완전실패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구직 성공 집단에서 가장 낮았지만, 이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7) 실적 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감

실적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에 대한 점수가 표 6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수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직시도 완전실패

패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성공집단과 구직 미시도 집단에서 다소 높았다  $F(3, 433) = 2.72, p < .05$ . 반면,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는 집단내 변산이 커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성공집단이 가장 희망적 관점을 보였고 구직 미시도 집단이 구직시도 완전실패 집단 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보고했다.

논 의

청년 실적에 관한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예상대로 실적에 따른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는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생활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나, 취업을 위한 재교육활동에는 변화를 덜 시도하고 있었다. 반면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생활 속에서 부정적 변화를 적게 경험하고 있었으나, 취업준비를 위한 재교육 활동에 타 집단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렇게 볼 때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 노력과 더불어 직접적이고 문제해결적 노력(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재교육 참여 등)의 여부와 같은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취업 기회의 절대적 부족이란 동일한 현실 상황에서도 취업 성패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반적인 진로 태도에서는 구직시도에서 성공한 집단과 아직 구직에 나서지 않은 집단(구직 미시도 집단)간의 태도에서 흥미있는 차이가 발견됐다. 진로태도에 대한 총점에서는 두 집단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명확한 진로태도를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따져 보면 준비성 차원에서 구직 성공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긍정적 준비 태도를 갖추고 있었고, 구직 미시도 집단에서 준비 태도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런 결과를 기초로 구직 미시도 집단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이들은 목표에 대한 인식, 독립적 결정능력 및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취업에 대한 긍정

표 6. 실적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무망감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무망감
구직미시도	4.39(1.35) <sup>a</sup>	3.83(4.45)
구직시도 완전실패	3.98(1.24) <sup>b</sup>	3.79(3.87)
취업성공	4.18(1.42) <sup>ab</sup>	2.45(2.50)
구직 부분실패	4.01(1.29) <sup>ab</sup>	3.39(3.45)
전체	4.07(1.29)	3.60(3.84)

적어도 1개 이상의 동일한 첨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적인 기대나 실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대처능력 지각과 같은 자기 효능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취업 상황에 융통성있게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다.

실적에 따른 통제감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Kessler, Timer & House, 1988; O'Brien & Kabanoff, 1979; Penta, 1980; Frost & Clayson, 1991), 일관적으로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감이 낮은 경향성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실패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예측능력과 통제능력을 다소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이 통제나 예측 가능성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실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달라진다는 연구(Fryer & McKenna, 1987)와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Seligman(1975)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따르면, 이전의 지속적인 실패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제시도 노력을 하지 않게끔 이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취업실패경험은 취업의 시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누적된 통제력 상실로 인한 장기적 효과를 찾아보기에는 본 자료 수집의 시기가 짧고 1회 응답을 분석한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후속 연구에서 본 자료의 2차 측정 자료를 가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시 검토해 볼 예정이다.

그리고 구직에 성공한 집단에서 의외로 사회정치적 통제감이 구직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과 동일한 정도의 낮은 통제감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하위영역의 문항이 정치적 내용을 질문하고 있어서 사회 정치 현실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또한, 대인간 통제감에 있어서 구직 미시도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나 자격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자신감과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구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짐으로써 구직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나 통제감이 낮은 사람들은 구직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아 구직을 시도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실적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이 가장 취약했으며 성공집단이 가장 건강했다.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신체화 증상 및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그리고 불안 경향성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였으며 취업에 성공한 집단은 위의 모든 차원에서 가장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에 성공한 집단은 적대감을 가장 낮게 보인 반면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은 가장 높은 적대감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일반 대학생들(김은정 등1993)과 비교해볼 때, 실적이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이 이러한 좌절을 통해 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자료에서 집단간 차이가 미미한 것은 본 척도가 임상집단에 적합한 것이어서 본 연구 집단 내에서는 반응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생활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이 자신들의 현재 생활을 불만스럽다고 지각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구직 미시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독특한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낮지 않은 반면, 실적상태에 대한 통제감은 낮고 미래에 대한 희망감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심리적인 적응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이 집단의 경우 미래에 대한 높은 불안감이 구직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 집단보다도 더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집단은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직업 관련 사회구조적 불안정이 이들의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실업률이 높을 때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는 연구(Patt & Kreitman, 1985)도 있으나, 본 연구에 참가한 청년실직자들은 일반적인 실직 상태에서 보이는 부정적인 특성들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들은 자신들에게 탁월 취업기회의 상실이 예기된 취업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이라서, 개인이 감당하기엔 혹독한 경험일 수도 있다. 구직시도에서 성공한 집단은 취업 실패경험이 있는 집단이나 구직 미시도 집단(취업이 외의 다른 진로를 결정한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경제적 자립이 이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실직자들이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준비자세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시도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청년실직자들이 실직에 대해 보이는 반응양상은 그들의 발달적 시기의 특징과 관련이 크다. 취업실패에 대한 경험도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직시도 자체를 포기한 채 수동적인 태도를 지님으로서 자기 효능감과 동기가 저하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감도 잃어서 청년기의 발달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적 불황이 아닌 시기에도 직업군에 따라 신규 인력의 취업과 관련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을 보이는 영역에서는 졸업후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 사회의 산업활동이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들의 문제가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인력 낭비와 개인적 시간 낭비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와 발달과업적 갈등을 이해하고 청년기의 진로지도와 직업관 교육의 새로운 관점들이 구체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절실하다

고 본다.

본 연구를 계기로 청년기 실직상황에 대한 후속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실직상황에 대한 반응은 시간에 따라 단계적인 과정을 거친다. 가령, Finley와 Lee(1981)는 실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Kubler-Ross (1969)의 죽음에 대한 과정 부인,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본다. 또한, 실직자들이 초기 충격을 경험하면서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는 1단계와 구직노력의 허사를 경험하면서 비관, 불안 등의 고통을 경험하는 2단계, 그리고 만성적 적응기로 들어가는 3단계로 구분되는 전형적인 실직자의 심리적 단계(Eisenbre & Lazarsfeld, 1938, 오경자, 1998 재인용)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직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심층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성인기와 달리 청년기의 실직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시기의 중요한 구체적 발달과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자기보고식 평가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측정치들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실직자들은 현재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Warr & Jackson, 1982). 즉,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기 보고식의 주관적 평가 자료와 함께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대상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들에 초점을 두었는데, 좀더 전집에 가까운 표집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취업시장의 기회변화에 따른 취업 상실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부족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기반의 변화에 따른 각 유형의 청년 집단에 보다 구체적인 교육적,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직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 매개 변인들에 기초한

세분화된 집단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실직경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우리나라 연구들을 통해서 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전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집단도 있으며, 시간관리훈련 등 기본적인 자기관리훈련을 요구하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인력 공급 과잉이 벌어지는 영역에서는 인력활용과 초기 진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에게는 각각 차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요강. 중앙적성 출판부.
-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 조신권(1993). 대학생들의 학업적, 심리적 적응 : 1년간 추적 연구. 연세 상담연구, 9, 87-127.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오경자 (1998). 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 이훈구 (1998). IMF시대의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 1998년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석민, 임두순, 송병민(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교육개발원.
-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 a reference manual*. Utah state University.
- Banks, M.H., & Jackson, P.R. (1982). Unemployment and risk of minor psychiatric disorder in young peopl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Psychological Medicine*, 12, 789-798
- Banks, M.H., & Ullah, P. (1988) *Youth unemployment in the 1980s: Its Psychological Effects*. London: Croom Helm.
- Beck, A.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361-865.
- Bolton, W., & Oatley, K. (1987). A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unemployed men. *Psychological Medicine*, 11, 561-580.
- Brenner, M.H. (1973). *Mental Illness and th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omhall, H.S., & Winefield, A.H. (1990). A comparison of the affective well-being of young and middle-aged unemployed men matched for length of unemploy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43-52.
- Campbell, A., Converse, P. E., & Ro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mo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l Sage.
- Coleman, J.C., & Hendry, L.B. (1999). *The Nature of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Crites, J.O. (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BT / McGraw-Hill.
- Derogatis, L.R., Lipman, R.S., Rickels, K. (1974). *The Hopkins Symptom Checklist (HSCL) : a measure of primary symptom dimensions*. In *Psychological Measurement in Psychopharmacology*, edited by Pichot, P., Basel, Karper.
- Donovan, A., Oddy, M., Pardoe, R., & Ades, A. (1986).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16-year-old school leav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65-76.
- Erikson, E.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 Psychological Issues*, 1, 50-100.
- Feather, N.T., & Barber, J.G., (1983). Depressive reactions and unemploy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 185-195.
- Frost, T.F., & Clayson, D.E. (1991).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stress-related life events and locus of control among unemployed and employed blue-collar worker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402-1417.
- Fryer, D.M.(1986). Employment deprivation and personal agency during unemployment. *Social Behavior*, 1, 3-23.
- Fryer, D.M., & McKenna, S.P. (1987). Laying off of hands-unemployment and the experience of time. In S. Fineman (ed.), *Unemployment : Personal and social consequences* (pp.47-73), London: Tavistock. Cited in Warr, Jackson & Banks (1988).
- Fryer, D.M., & Payne, R.(1984). Proactivity in unemployment: findings and implications. *Leisure Studies*, 3, 273-295.
- Gurney, R.M. (1980). Does unemployment affect the self-esteem of school leave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2, 175-82.
- Hawton, K., & Rose, N. (1986). Unemployment and attempted suicide among men in Oxford. *Health Trends*, 18, 29-32.
- Hartley, J.F. (1980). The impact of unemployment upon the self-esteem of manag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 139-146.
- Hendry, L B., & Raymond, M.(1986). Psychological/ sociological aspects of youth unemployment. *Journal of Adolescence*, 9, 355-366.
- Jackson, P.R., Stafford, E.M., Banks, M.H., & Warr, P.B (1983).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moderating role of employment commit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525-35.
- Kessler, R.C., Turner, B., & House, J.S.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69-86.
- Latack, J. C., & Dozier, J. B. (1986). After the ax falls : job loss as a career transi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375-392.
- Liem, R. & Liem, J.H. (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87-106.
- O'Brien, G. E., & Kabanoff, B. (1979). Comparison of unemployed and employed workers on work values, locus of control and health variables. *Australian Psychologist*, 14, 143-154.
- Parkes, C. M. (1984). *Foreword to the Forsaken Families*, Fagin, L. and Little, M.(Eds.). Harmondsworth: Penguin.
- Patterson, L.J. (1997). Long-term unemployment amongst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261-280.
- Paulhus, D.L. (1983). Spheres-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53-1265.
- Paulhus, D.L. (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98-609.
- Payne, R.L., Warr, P.B., & Hartley, J. (1984). Social class and psychological ill-health during unemployment.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6, 152-174.
- Penta, L. (1980). Response to involuntary unemployment as a function of locus of contro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11, 675-B.
- Platt, S. & Kreitman, N. (1990). Long-term trends in parasuicide and unemployment in Edinburgh, 1968-87.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 56-6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 Seligman, M.E.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 Freeman
- Stokes, G. (1983). Work, unemployment, and leisure. *Leisure Studies*, 2, 269-86.
- Super, D.E., Crites, J. O., Humme, R. C., Moser, H. P., Overstreet, P. L., & Warnath, C. F. (1959). *Vocational development: A framework for research*.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Swinburne, P. (1981).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on managers and professional staff.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4, 47-64.
- Taylor, K.F., & Gurney, R.M. (1984). So you're thinking of studying unemployment? in M.C. Nixon (ed.) *Issues in Psychological Practice*. Melbourne: Longman Cheshire.
- Ullah, P., & Brotherton, C.(1989). Sex, social class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s of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econdary school pupils in Englan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9, 49-58.
- Wanberg, C. R., & Marchese, M. C. (1994). Heterogeneity in unemployment experience :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473-488.
- Warr, P.B.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 Clarendon Press.
- Warr, P.B., & Jackson, P.R. (1982).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rolonged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Psychological Medicine*, 15, 795-807.
- Warr, P.B., & Jackson, P.R., & Banks, M. (1988).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British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47-68.
- Warr, P.B., & Payne, R.L. (1982). Experiences of strain and pleasure among British adults. *Social Sciences and Medicine*, 16, 1691-1697.
- Weiner, B. (1980). *Human motivation*. NY:Holt, Rinehart and Winston.
- Winefeld, A.H., & Tiggemann, M. (1989). Job loss versus failure to find work as psychological stressors in the young unemployed.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2,79-82.
- Winefeld, A.H., Tiggemann, M., & Winefeld, H.R. (1991).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in young men and women: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data.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2, 473-486.
- Winefeld, A.H., Tiggemann, M., Winefeld, H.R., & Goldney, R.D.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un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o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424-431.
- Winefeld, A.H., Tiggemann, M., Winefeld, H.R., & Goldney, R.D. (1993). *Growing up with un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impact*. London: Routledge.
- Winefeld, A.H., & Winefeld, H.R.(1992).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d youth: education, employment, and vocational identity, in P. Heaven (ed.) *Psychological Bases of human Development* (PP. 140 -66). Sydney: Harcourt Brace jovanovich.
- Warr, P.B., & Jackson, P.R. (1984). Men without jobs: Some correlates of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75-87.
- Winefeld, A.H., Winefeld, H.R., Tiggemann, M., & Goldney, R.D.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o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424-431.

1차 원고 접수 : 2000년 6월 13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7월 29일

## The Psychological Effect Of Economic Depression On The 20's Unemployed

Hoon-Koo Lee\*, Inkyung Kim\* and Yooncha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effects of success-failure experiences in job hunting on a variety of psychological functions of individuals. As participants 476 people in the twenties completed questionnaires of changes in life events, career attitudes, identity, mental health, life well-being, perceived control, and hopelessness. On the basis of attempts to hunt a job and subsequent success-failure experiences, participants were partitioned into four groups; complete success group, partial success group, complete failure group, and no attempt group.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mplete failure group experienced the worst changes in life events and marked the lowest scores for mental health, perceived control, and life well-being. Instead, the complete success group was the best functional in a range of psychological respects, especially in preparation for and attitudes toward job. Although the no attempt group had a somewhat high level of life well-being, they reported a high score on the future hopelessness scale and revealed a low level of perceived control.